

## 한중일 경제 삼국지 전망

현대경제연구원 상무 유병규

동북아 경제권의 3대 맹주라 할 수 있는 한국, 중국, 일본의 경제 판도가 최근에 들어서 급속히 변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중일 경제 판도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진앙지는 중국이다. 중국은 그동안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해 온 결과 2006년 말에 외환보유고가 1조 달러를 넘어서 세계 최고의 외환 보유 국가가 되었다. 외환보유고의 급증은 중국의 발전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꾸도록 강요하고 있다. 급속한 양적인 경제 성장은 대외적으로는 위안화 절상 압력과 통상 마찰을 증대시키고, 대내적으로는 과도한 자산 가치 상승에 의한 버블 경제의 위험성을 높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중국은 이제 노동과 투자의 양적 증가에 의한 외연적 성장 단계를 지나 자체 기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내포적 발전 단계로의 이행을 도모하고 있다. 과도한 무역 흑자를 축소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오던 임가공 중심의 수출 산업 육성 정책을 전면 수정하여 첨단 기술 산업을 집중 육성하려는 것은 이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산업 민족주의를 보다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중국이 경제 발전 전략을 수정해 나가는 한편 일본은 지난 10년 동안의 경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 역사상 최장의 경기 호황기를 구가하고 있다. 2002년 1월에 장기 경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난 일본 경제는 현재 일본 사상 최장의 경기 호황기라는 이자나기 경기보다 더 긴 활황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 투자 억제와 같은 각종 규제들의 과감한 혁파와 공공 부문 축소 등을 통한 정부 혁신이 경제 회복의 비결로 평가된다.

한국이 최근에 들어서 갈수록 성장 잠재력을 잃어가고 있는 데 비해, 중국의 경제 발전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고 일본의 경제 활력이 다시금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한국이 한중일 경제 전쟁에서 낙오자가 될 공산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중국이 자국 산업의 기술 고도화를 추구해 나간다면, 가까운 장래에 기러기가 날아가는 것처럼 일본, 한국, 중국 순으로 이어지는 순차적 경제 성장 과정인 동북아 3국간의 안행형(雁行型) 발전 패러다임은 깨어지고 말 것이다.

경제력은 정치외교와 문화의 영향력과 직결된다. 한국의 경제력 약화는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떨어뜨려 북핵 등 한반도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주변국으로 전락시킬 가능성마저 높여준다. 또한 경제적 뒷받침이 없이는 아시아 문화 시장에서 한류 현상도 지속되기 힘들다. 새해에는 아무쪼록 한국의 政官財계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중국과 일본의 경제 책략을 극복하고 선진 경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경제 선진화 대전략을 마련하길 고대한다.